

CNT에 진짜 별별 인물이 다있다는 걸 알았다.

심장중의강철

marin civera(마린 시베라).

CNT 출신인데 "우리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자유의지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조합시켜서 절충안을 내놓으면 이상적인 아나키즘적 생디칼리슴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아가서 "앙헬 페스타냐"랑 같이 "생디당을 같이 만듭" 그니까 창립멤버.

이후에 "생디칼리슴"이라는 책도 피면서 "맑시즘은 3가지의 체제를 가진다. 독일 사회당의 의회선거,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영구혁명, 그리고 파리코뮌의 협동조합이다."라는 책을 써가면서 "우리 생디칼리슴이랑 맑시즘이 이렇게 잘 조화될 수 있는데 반파쇼노동자 연대 하자."하면서 폭주하기 시작함.

하지만 팔랑헤가 내전 이기고 멕시코로 망명길 가고서 더 폭주했는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외부에 종속시켜 외부에서만 행복을 찾게하며 자본가를 부유하게 만든다. 이는 비인간화 과정이며 인간은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비인간화를 끊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라고 갑자기 원시주의 밈더니 "사실 인간의 행복은 외부가 아닌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정신수련, 요가, 명상(심지어 여기서 예로 티베트 승려의 명상을 예로둠)등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해야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함.

대체 생디칼리슴은 뭐가 문제지?